

종교 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기관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나 기사거리가 있으면 이메일 (info@townnewsusa.com) 또는 전화 (714-530-1367) 로 알려주세요.

교황, 주기도문 변경 공식 승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주기도문의 변경을 공식적으로 승인했다.

미국의 가톨릭 신문인 더 유에스 카톨릭(The U.S. Catholic)은 최근 교황청(바티칸)이 최신 번역판에서 '신학적, 목회적, 문체적 관점에서' 실수를 발견한 전문가들의 16년의 연구 끝에 지난 5월 22일(현지시간) 주기도문을 변경했다고 보도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2017년 처음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는 내용을 수정하자는 의견에 지지를 보냈다. 당시 그는 "아버지(하나님)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으신다"며 "우리가 즉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교황은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시험으로 이끄시는 것처럼 묘사한 이 번역은 좋은 것이 아니다"며 "우리를 시험으로 이끄는 자는 사탄이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역할"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의 영문이 기존 'Lead us not into temptation'에서 'Do not let us fall into temptation'으로 수정될 예정이다.

청소년 연합수련회 나성순복음교회

나성순복음교회(담임목사 진유철,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가 제 4회 청소년 연합수련회(Joint Youth Retreat)를 개최한다.

이 수련회는 '믿음에 굳게 서서' (Stand Firm in the Faith, 고린도전서 16:13)라는 주제로 나성순복음국제침례기도원(30250 Gunther Rd., Romoland, CA 92585)에서 7월 22일(월)-24일(수)까지 열린다. 데이빗 김 목사(버지니아 호프 웰순복음교회 담임)가 강사로 나선다. 주요 프로그램은 예배 및 집회, 물놀이(Drop Zone Water Park), 조별 발표, 레크레이션 등이며 영어와 한국어로 진행된다.

참가 대상은 6-12학년 학생이며, 교회당 등록 인원은 15명 이하로 제한된다. 총참가 인원은 선착순 100명에 한한다. 등록 마감일은 6월 21일(금)이다. 참가 신청은 나성순복음교회 웹사이트(www.lafgc.com)에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참가 비용은 무료이다.

교단, 교파와 상관없이 참가할 수 있다.

문의: (951) 928-4415



시련은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마태 14, 22-33)

사람은 생애를 통해서 올라가는 때와 내려가는 때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의 여정에서 중요한 것은 올라갈 때보다 오하러 내려갈 때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성공할 때보다도 실패할 때가 실은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기입니다.

엘리아는 갈멜산에서 바알의 숭배자들과 싸워서 그들의 예언자 450명을 모조리 죽였습니다. 아주 통쾌하고도 멋진 승리의 장면이었으며 이때 엘리아의 놀라운 기세는 아무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알의 광신자였던 왕후 이세벨이 엘리아에게 복수를 다짐하자 그는 거꾸로 무서움에 떨며 도망치는 신세가 됩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그 믿음의 기운이 한 순간에 꺾여서 하나님께 죽여 달라는 애원도 했습니다.

어제의 당당한 승리가 오늘은 패배자가 되어 자기 몸 하나 숨길 수가 없었고 놀라운 신앙을 증거하였던 그도 하나님은 자기를 버렸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앙의 위기를 만난 것이며 이제 더 이상의 탈출구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때 엘리아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납니다. 하나님은 그를 버린 것이 아니었으며 새로운 차원에서 그를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치 어제의 승리로 오만해질 수도 있는 엘리아를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조용하고 여린 소리'에서 당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옵니다. 5천 명을 배불리 먹이신 빵의 기적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배에 먼저 태워 보내십니다. 풍량이 그들을 괴롭힐



줄을 뻗히 아시면서도 새벽 4시까지 기다리십니다. 마치 당신이 없는 세상을 어디 좀 살아 보거라 하는 식으로 버려두셨다가 나중에 물 위를 걸어서 가시는데 제자들은 이때 가까이 오시는 주님을 유령으로 착각하여 더 큰 두려움에 휩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주님은 "나다, 안심하여라." 하시며 배에 오르시자 바람은 그치고 풍량은 잔잔해졌습니다.

인생이라는 배를 저어 가는 호수에는 언제나 사나운 바람과 성난 물결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련의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나다, 안심하여라." 하시는 그분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주님은 진정 우리가 내려갈 때 그 밑바닥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래 전의 얘기입니다. 어떤 형제가 몇천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수중에 꼭 7만원이 남더라고요. 너무도 허망하고 답답했던 그는 성당을 찾아가 신부님께 조

언을 청했더니 신부님은 "그 7만원은 뭐하러 가지고 있노. 내 3만 원을 더 줄 테니까 10만 원을 채워서 하나님께 봉헌하고 진짜 빈주머니로 다시 시작해 보거라." 하시더라고요.

형제가 처음엔 그 말씀을 듣고 참으로 기막힌 생각이 들더라고요. 없는 사람 도와줄 생각은 없고 '벼룩의 간' 마저도 뺏으려 하는구나 하는 착각도 들었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니 어차피 망한 것, 7만 원이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라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자기가 거꾸로 살았던 사실을 깨닫고는 신부님 말씀대로 무일푼으로 다시 시작했는데 지금은 크게 성공했습니다.

물 속에 빠졌던 베드로의 주책(?)도 일품입니다. 소위 첫째가는 제자라는 그가 그 모양이나 다른 사람들 이야 오죽 하겠습니까마는 물 속에 빠지는 인간의 그 허망한 현실에서 주님께 온전히 매달렸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기를 잡아 일으키시는 그분의 손길을 체험하게 됩니다. 역설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내려가는 때가 바로 그분을 만나는 때요 새롭게 크게 일어서는 때입니다. 엘리아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마음에 풍량이 심하고 분노의 불길이 크게 솟구칠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를 참고 견디면 하나님의 '여린 소리'를 진실로 체험하게 됩니다. 실패해서 고생할 때나 시련으로 몸부림칠 때는 하나님이 우릴 찾아오시는 발자국 소리입니다.

-강길웅 신부-

법률 문제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십니까?

LAW OFFICES OF
SUH & SUH
A PROFESSIONAL CORPORATION
L.A. & O.C. (714)368-1655
161 Fashion Ln, Suite 111, Tustin, CA 92780

형제와 같은 마음으로 도와 드리겠습니다 서 & 서 법률사무소

- **가정법 Family Law**
이혼, 양육권/방문권, 입양, 리빙트러스트, 혼전(후) 계약
- **이민법 Immigration Law**
가족/취업이민, 신분변경 E-2, H1B, L, O visa
- **민사/형사법 Civil/Criminal Law**
민사소송, DUI
- **상법 Business Law**
법인설립, 계약서
- **번역 업무도 가능합니다**



서자경 변호사
Ja K. Suh, Esq.
Certified Family Law Specialist,
Certified by the State Bar of CA
Univ. of Missouri-Columbia 법대 (J.D.)
Univ. of Missouri-Columbia 비평론 석사

서자현 변호사
Ja H. Suh, Esq.
California Western 법대 (J.D. Dean's List)
미국 이민법 변호사 협회 멤버(ALIA)
오렌지카운티 한인변호사 협회 위원회
오렌지카운티 한인상공회 이사역임
오렌지 카운티 회장단 협회 회원 역임

San Diego (858)622-6279
4660 La Jolla Village Dr., #500, San Diego 92122

Vista (760)643-4084
380 South Melrose Dr., #363, Vista, CA 92081

www.suhl.com
info@suhl.com